

환경부
보도참고자료
☐ 2004.12. 배포
☐ 사진 없음
☐ 총 6쪽

국제협력관실	김형섭 담당관	전화	02-2110-6559
지구환경(담)	조한진 사무관	(메일)	cho014@me.go.kr

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

- 개도국 의무감축 참여문제도 논의될 전망 -

- ◇ 2004.12.6~17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, 189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, 민간단체 등 약 7천여명 참가
 - 우리나라는 객결호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, 산업계, 민간단체 등 80여명 참가
- ◇ 기후변화협약 발효 10주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, 교토 의정서 이행관련 사항, 기후변화영향과 적응, 개도국 지원 방안 등 논의

☐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12.6 ~ 12.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다.

- 금번 당사국총회에는 189개 협약 당사국 정부대표 외에 국제기구, 민간단체 대표 등 7천여명이 참가하여 교토의정서 이행관련 사항,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, 국가보고서, 개도국 능력형성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.

☐ 특히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, 당사국간 온실가스 거래 내역 등록,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 총회 준비 등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,

- 한국, 멕시코, 중국 등 선발 개도국들의 의무감축 참여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특히 미국, 호주 등 아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주요 당사국들에 대한 의정서 비준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,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을 포함한 중국, 브라질, 인도,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또한, 금번 총회는, 교토의정서 이행으로 인한 석유 수출 감소를 우려한 중동 산유국들의 보험제도 도입 요구,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 등 기후변화 취약성이 큰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 요구, 개도국 그룹인 G77/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강화와 선진국의 철저한 감축의무 이행 요구 등 국가, 그룹 및 지역별로 다양한 의견과 입장,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우리나라는 금번 당사국총회에 박경호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4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실무회의 및 각료급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주요 논의 의제별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.
- 특히 수석대표인 박경호 장관은 12.15~17일간 각료급 회의에 참석하여 EIG 그룹(Environmental Integrity Group)을 대표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지구촌이 교토의정서의 이행과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언급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박장관은 각료회의 기간 중 미국 수석대표, 호주, 캐나다 및 멕시코 환경장관, 그리고 일본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인 '지구환경전략연구소' 소장과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기후변화협약 이행 및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양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과 전략적 제휴를 도모할 예정이다.

〈참고자료〉

붙임 :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참가계획

〈붙임〉

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참가 계획

가 본 방 향

- ◇ 환경부장관을 정부수석대표로 각료급회의 참석 및 양자회담 추진
- ◇ 실무대표단은 회의 의제별 우리나라 입장 적극 반영 추진

I. 회의개요

가. 일시 및 장소 : 2004. 12. 6~17,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

나. 참가자 : 협약 당사국(189개국), 국제기구, NGOs 등 약 7천여명

- 정부대표단(42명) : 국조실, 환경부, 외교부, 산자부, 재정부, 산림청, 농진청 및 자문기관(19명) 등

※ 기타(44명) : 국회(6), 산업계 (15), NGOs 및 학생 (19), 언론사 (4)

다. 주요 안건

- 협약 10주년의 실적 평가와 향후 과제
- 교토의정서 발효 관련 사항
 - 제1차 의정서 당사국총회 준비 및 개도국의 의무감축 참여 문제 등
-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 개도국 지원 관련 사항
-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관련 사항 등

라. 회의 일정

기 간	주요 회의일정	정부대표단 활동
12. 6	당사국 총회 개회	실무대표단 회의참가
12. 7 - 12. 14	부속기구회의 및 의제별 소그룹회의	실무대표단 회의참가
12. 15 - 12.17	각료급 회의(패널토의)	환경부장관 각료급 패널토의 및 양자회담 참석

Ⅱ. 수석대표 활동계획

가. 각료회의의 기조연설(EIG 그룹을 대표하여 연설)

-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이행 상황
- 향후 2차 공약기간('13~'17) 의무감축 논의대비 우리의 기본입장 표명
-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강조 및 의정서 이행 준수 강조
- 환경친화기술 이전, 적응 대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조

※ EIG 그룹(Environmental Integrity Group) : 한국, 멕시코, 모나코, 리히텐슈타인, 스위스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관련 협상그룹

나. 각료급 패널토의 참가 및 발언 요지

① 협약 10년 후의 성과와 도전

- 기후변화협약 발효 10년 간의 국제사회 노력 평가

② 기후변화의 영향, 적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

-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필요성
- 국가·지역·전 세계 차원의 적응대책 수립 필요성 강조

③ 기후변화와 기술 이전

- 수소연료 전지, 전기자동차, 태양력 등 신·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첨단 친환경 기술 개발, 이전 및 보급 필요성 강조

④ 기후변화 완화 정책 및 그 영향

-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결정 및 이행과정에 정부기관, 지자체, 산업계, 학계, 시민단체, 일반시민 등 폭넓은 참여와 각국간 협력 강조

다. 양자회담 추진

제2차 공약기간 중 개도국 의무감축 참여 문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관련 주요 현안 논의 및 주요국과의 전략적 제휴강화

【미 국 - 국무부차관(수석대표)】

- 「14개국 메탄가스저감 파트너십」의 한국 참여방안 협의
- 통합환경전략연구 등 EPA와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환경협력 확대 방안 논의

【캐나다 - 환경장관】

- 청정개발체제사업(CDM을 포함한 기후변화 구상에 관한 MOU체결 추진

【호 주 - 환경장관】

- 2005. 4 APEC 차원에서 한국·호주 “기후변화와 기업에 관한 아·태지역 워킹그룹”공동개최 추진 방안 논의
- 한·호주 철새보호협정 체결 논의

【멕시코 - 환경장관】

- OECD 국가이면서 선발개도국 입장에서 2차 공약기간 중의 의무감축에 관한 양국 공동대응 방안 모색

【기 타】

- 지구환경전략연구소장(일본)과 전문가 및 연구인력 교류 등 기후변화 대응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
- 기타 EU대표, 영국 등 현지에서 양자회담 추진

Ⅲ. 실무대표단 활동계획

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(SBSTA), 이행부속기구(SBI) 등 기후변화협약 부속 기구회의 및 협상그룹에 참가하여 의제별 우리의 입장 적극 개진

가. 적응/완화 신규 의제 논의

- 향후 개도국의 의무 부담 문제와 관련 중점 논의 될 수 있는 '기후 변화 적응 이슈'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 표명

나. 교토의정서 이후 ('13) 체제 논의 참여

-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 논의와 교토 이후 체제(regime)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, 체제 형성과정에 적극적인 참여

다.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 준비

- 토지이용, 토지용도 변경 및 산림 이슈(LULUCF), 청정에너지 수출 문제, 기후변화 대응 조치의 부정적 영향문제 등 교토의정서 관련 주요 사안 논의에 적극 참여

라. 주요 선출직 진출 추진

- 현재 우리나라가 1석 진출하고 있는 기술이전전문가그룹(EGTT)의 연임 추진
-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에 교체 이사국으로 진출 추진

마. 기술이전 논의

- 공공기술 이전 관련 사항의 이행 점검, 선·개도국간의 공동 연구 및 개발 촉진 활성화 필요성 등 강조

바. 주요국과의 협력방안 추진

- 미, 영, EU, 캐나다 등 실무협의회 개최
- EIG(우리나라, 스위스, 멕시코) 그룹대표 회동 : 협력방안 협의